

# 경악... 충격... 2m 구덩이에 가방째 묻어

## ■ 네 모녀 실종에서 사체 발견까지 실종 다음날 암매장 된 듯

지난달 18일 실종된 서울 마포구 창전동 김연숙(45·여)씨와 세 딸 등 일가족은 결국 화순의 한 야산 구덩이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된지 22일만이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전 해태타이거즈 선수 이호성(41)씨가 10일 한강에서 번사체로 발견되면서 이들 실종 모녀의 생존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화려한 스타플레이어 출신의 빛나간 범행의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김씨 가족의 실종과 이씨의 자살, 김씨 가족의 시신 발견까지를 정리한다.

◇김씨 가족 실종, 보름 만에 신고 접수=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씨가 세 딸과 함께 연락이 끊긴 채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 3일.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자 김씨 오빠는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고 "사장님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종업원 말을

듣고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실종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종업원들에게 "며칠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씨 집에서 김씨의 혈흔을 발견했으며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 당일 오후 한 남성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형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들 모녀가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김씨 주변을 수사하던 경찰은 김씨가 전직 야구선수 이씨와 가까운 사이였던 경황을 포착했다.

◇경찰이 재구성한 실종 모녀·용의자 행적=경찰이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더 있다. 김씨가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잠치 뒷집에서 퇴근한 것은 지난달 18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다.

이어 18일 오후 4~5시경 김씨의 아파트 앞에서 김씨 소유의 SM5 승용차를 주차해둔 채 대형 여행가방을 들고 있던 한 남성이 인근 주민에게 우연히 목격됐다.

이날 오후 9시14분 아파트 CCTV에는 한 남성이 카트를 끌고 김씨 아파트로 들어갔다대 대형 가방을 싣고 나오는 장면이 찍혔고 이 남성은 40여 분간 모두 5차례에 걸쳐 아파트를 드나들며 짐을 실어날랐다.

◇이호성 자살, 사체 발견=비공개리에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신고 접수 일주일 만인 10일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호성은 공개수사 착수 5시간 정도 지난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용산구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중간지점 한강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어 이호성의 부락을 받고 김씨 일가족이 묻힌 구덩이를 관 인부 유모(46)씨가 10일 오후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화순경찰은 유씨의 신고를 받은 뒤 이날 밤 화순군 동면 모 교회 공원묘지 인근 야산의 구덩이를 파헤쳐 김씨 일가족 시신 4구를 찾아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화순경찰이 10일밤 11시경 화순군 동면 청곡리 야산 모녀 암매장 현장에서 구덩이를 파헤치고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 참극 주범인 이호성은

#### 은퇴후 사업 실패 '사기' 복역



지난 1990년 KIA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스에 입단한 이씨는 2001년 KIA에서 퇴출통보를 받고 유니폼을 벗었다. 이씨는 2년 연속 외야수 골든 글러브를 수상할 만큼 실력이 대단했다.

선수생활 당시 이씨는 동료·후배선수들에게 '차력사'로 불릴 정도로 힘이 셸다. 또 야구선수협회장을 비롯, 전 해태 타이거즈 주장을 역임했다.

은퇴 후 광주지역에 웨딩홀을 차린 이씨는 사업 초기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한 듯했으나 부동산 사기를 당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됐다.

결국 이씨는 지난 2005년 2월 사기혐의로 구속돼 2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뒤 풀려났다. 출소 후 그동안 진 빚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 암매장 장소 왜 화순인가

#### 선친묘 있어 지리에 밝아

이호성은 왜 김씨 모녀 일가족 4명의 시신을 화순 야산에 유기했을까. 경찰은 이씨가 화순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데서 이유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야구선수 시절 화순으로 회식을 자주 왔고, 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다, 자신의 선친의 묘소가 화순에 있어 이곳 지리에 밝다는 점을 꼽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와 함께 프로야구 선수를 했던 장모(44), 김모(49)씨 등이 화순군 남면과 한천면 등에서 살았고,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지인이 화순에 있어 이곳을 자주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선수 시절 같이 활동했던 이모(44)씨가 화순 모 교에서 야구팀 감독으로 재직중인 것도 이유로 해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수 시절 광주에 가까운 화순에서 회식을 자주 즐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사체를 유기했을 경우 지리에 밝은 화순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 3년전 동업자 실종사건은

#### 이씨 만나러 간뒤 연락 두절

이호성씨가 자살하고 실종자였던 일가족이 피살체로 발견됨에 따라 3년 전 발생한 이씨의 동업자 실종사건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광주서부경찰도 이 실종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이호성씨와 함께 순천 실내경기장 사업을 추진해왔던 투자자 모집책 조모(당시 36세)씨는 지난 2005년 8월 3일 실종됐다. 당시 조씨는 사업 주체인 이씨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투자자 모집에 나섰으나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이씨 등 2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조씨의 부인 H(33)씨는 10일 "남편이 이호성씨를 만나러 간 뒤 2시간 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남편과 이씨가 급전 문제로 자주 다툰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침 (7454) 김중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만행

여자못 도둑 풀어 줬더니 또 훔쳐

○대형 유통할인점에서 치마를 훔치다 적발된 20대 남성이 경찰에서 풀려 난지 3시간 만에 또다시 여성 의류를 훔치다 발각돼 경찰서행.

○목포경찰은 10일 여성 의류를 상습적으로 훔친 최모(28)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일 밤 8시경 목포시 용당동 S홈플러스의류매장 한 여성복 판매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8만 원 상당의 속옷과 바지 등을 훔치다 매장 주인의 신고를 받고 온 경비업체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3시간 전 목포 상동 1마트에서 치마를 훔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풀려났는데, 경찰에서 "여성 옷만 보면 나도 모르게 훔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진술.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사건 일지
▲2월 18일 오후 9시20분=40대 남성 김씨 아파트에서 대형 가방 싣고 밖으로 나감
▲ " 오후 9시22~56분=4차례 더 드나들며 대형가방 싣고 나감
▲2월 19일 오전 5시=화순 한 야산에서 김씨 큰딸 휴대전화 위치 포착
▲ " 오후 2시53분=화순 고속도로 장성나들목 자동관독기에 김씨 소유 차량 검색
▲ " 오후 8시18분=한 남성이 김씨 아파트에 김씨 소유 차량을 주차한 뒤 사라짐
▲3월 4일=경찰, 김씨 일가족 실종사건 수사 착수
▲3월 9일=경찰, 이호성 공개수배
▲3월 10일=이호성 한강서 번사체로 발견
▲3월 10일=김씨 모녀 4명 화순서 시신으로 발견

경 제11기 졸업생 이소연 한국 최초 우주인 결정 축
광주 과학영재의 상심,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도 기대했습니다.
1984년 개교한 광주과학고는 지난해 한국천문총회피아드 대상 수상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1천700여명의 과학영재를 배출했습니다. 한국 과학의 밝은 미래, 광주과학고 가 책임졌습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과학고길 44